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8년12월21일 | 조사역(G3) 김도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48천 km ² (한반도의 2/3)	인구 164.9백만 명 (2018 추정)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2,863.2억 달러 (2018 추정)	1인당GDP 1,736.57달러 (2018 추정)	통화단위 Taka	환율(U\$기준) 83.61 (2018추정)

- 방글라데시는 동쪽으로 미얀마, 서쪽으로 인도, 남쪽으로 벵갈만과 접하고 있으며 세계 8위의 인구대국 (1.65억 명)으로, 인구밀도(약 1,127.4/km²)는 세계 12위로 높은 수준임.
-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갈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됨. 이후 1971년 서파키스탄의 차별 정책에 반발한 아와미 연맹이 동파키스탄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정하고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함.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산업 외에는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며 외자 및 원조 조달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임. 다만, 가파른 경제성장세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세계은행은 2014년 동국의 소득수준 분류를 저소득국에서 저중소득국으로 변경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북한과는 1973. 12. 16)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년), 문화협정('79년), 항공협정('79년), 사증면제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83년), 투자보장협정('86년), 경제기술협력협정('93년), 과학기술협력협정('95년), 무상원조협종('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17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출	1,208,795	1,158,421	1,276,319	철강판, 합성수지, 종이제품
수입	335,264	293,112	285,756	의류, 가죽, 신변잡화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2018년 9월 말 기준 281건, 328,42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6.3	6.9	7.2	7.1	7.0
소비자물가상승률	7.0	6.2	5.7	5.7	6.0
재정수지/GDP	-2.9	-3.7	-3.2	-3.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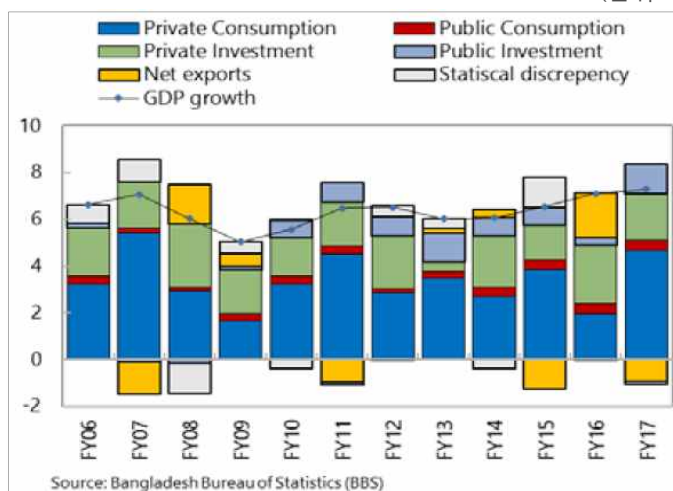
자료: IMF, EIU

민간소비와 인프라 투자 증대로 2018년 7% 경제성장 전망

- 2010년 이후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방글라데시 경제는 전체적인 구매력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17년에도 7.1%의 성장을 기록함.
- IMF 2018년 Staff Report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2017년 기준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민간소비(Private Consumption),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순으로 높았음.

[그림 1]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2006 ~2017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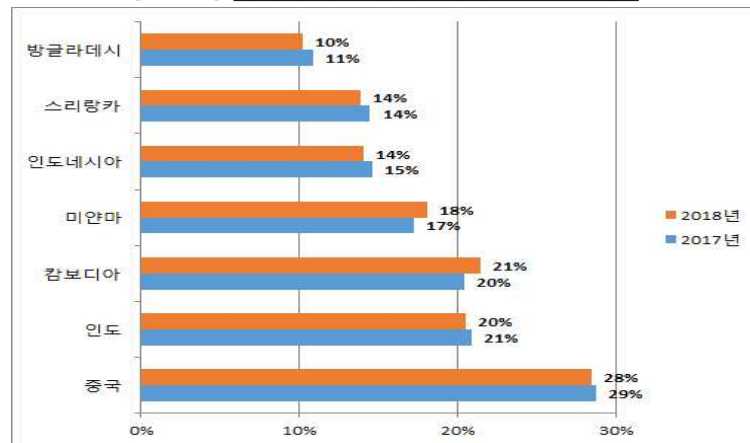
자료 : IMF Staff Report 2018 Article IV Consultation

-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막대한 인구규모를 바탕으로 한 민간소비 증가, 인프라 부문 내 정부지출 및 민간 투자 확대, 의류 부문의 수출 성장세, 중동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전망 등에 비추어 2018년에도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 방글라데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2017년 기준 세계 2위(시장점유율 6.5%) 의류수출 국가로, 의류 산업은 전체 수출의 84%, GDP의 2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으로 최근 의류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8년 -3.9% 수준으로 확대 예상

- 방글라데시는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1%로 정부차원의 재정수지 적자 관리목표(GDP의 5%)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음.
- 2018/19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을 2017/18년 대비 16.7% 증가한 211억 달러로 확대 편성하는 등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년)에 따른 경제성장 목표(2020년까지 8%) 달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개발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정부수입이 GDP의 10%에 불과함.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총선 이후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제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으로 파악되며,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행정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추진중임.

[그림 2] 아시아 주변국의 정부수입/GDP 비교



자료 : IMF WEO (2018. 10월 자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중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6% 기록 전망

- 매년 흉수로 인한 농작물과 식품 공급량 제한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식품 수입 확대 등 물가 안정화 노력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7%를 기록함.
- 2018년에도 반복된 흉수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국제유가 회복세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한 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5.4~5.6%)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정부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안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임. 방글라데시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 목표 경제성장률은 7.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9%로 파악됨.
- 특히, 흉수로 인한 식품 수급의 변동성 확대, 에너지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상수지	756	2,580	931	-6,365	-6,956
경상수지/GDP	1.2	1.7	0.6	-1.2	-2.0
상품수지	-7,482	-6,120	-6,244	-12,256	-15,845
상품수출	29,925	31,736	34,122	35,302	37,420
상품수입	37,406	37,856	40,366	47,558	53,265
외환보유액	20,936	24,507	29,770	33,121	31,996
총외채	34,831	37,175	40,129	45,090	48,095
총외채잔액/GDP	18.9	17.8	17.2	16.5	16.2
D.S.R.	4.0	5.4	3.5	2.9	3.1

자료: IMF, EIU

자본재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 경상수지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지난 10년 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본재 수입 확대, 홍수 피해로 인한 식료품 수입 증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2017년 중 적자로 전환함.
- 무역구조 상 방글라데시는 의류와 같은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총수출의 84%를 차지하고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이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GDP의 5.2%, 수출수입액의 49.2%)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상쇄하는 구조임.
 - * 경상이전수지(백만 달러) : 15,603('14) → 15,769('15) → 14,123('16) → 14,013('17) → 16,335('18^f)
- 당분간 의류 수출에 의존하는 교역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본재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8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다만, 중동 국가들의 경기회복 영향으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2018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21.9% 성장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동국의 경상수지 개선에 긍정적 요인임.

충분한 외환보유액 보유

- 의류 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증가세에 힘입어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3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월평균수입액 6.4개월분 수준임.
- 2017년 수입 증가율(17%) 대비 외환보유액 성장률(11%)이 낮아 외환보유액 보유수준이 2016년의 월평균 수입액 7개월에서 2017년 중 6.4개월분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외환보유액은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 2018년도 OECD 기준 외환보유액은 320억 달러로 집계되며, 점진적인 해외근로자 송금액 유입액 증가세로 볼 때 2019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지속적인 외채관리로 외채상환능력이 양호

-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인의 증권 투자 및 민간 부문의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해 외채규모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며,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도 대체로 양호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7년 16.5%로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이 낮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7년 2.9%, 2018년 3.1%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중장기 외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채 만기구조가 양호하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도 2017년 기준 23.8%로 단기외채상환 부담이 낮아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함.
- 2018년에도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18.5%,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24.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는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구조적취약성

낮은 부패인식 수준과 열악한 기업경영여건

-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2009년 이래 2014년에도 재집권에 성공하며 10년째 연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총리가 소속된 아와미 연맹을 견제할 만한 야당이 부재함에 따라, 정부 관료 조직 전반에 부패가 만연한 상황임.
- 이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나 투자자들 사이에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급행료 지급이나 선물 등 비공식적인 대가 지불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되어 있을 정도로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한 비효율이 큼.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43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 방글라데시는 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도 조사대상 190개국 중 177위로 주요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점수가 낮았던 부문은 주로 사업개시(184위), 조세납부(179위), 계약실행(175위), 전력획득(150위) 등으로, 복잡한 사업개시 절차 및 조세체계, 비효율적인 법률 시스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정전 문제 등이 기업경영여건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임.

* 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순위 : 인도(100위), 스리랑카(111위), 파키스탄(147위)

낮은 국민소득, 취약한 세수기반 정부재정 부족

-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70달러(2017년, 세계은행)에 불과하여 세금부담 능력이 낮고 조세 행정시스템 비효율로 인해 조세징수에 여러 제약이 있어 지출대비 정부수입이 부족함.
- 정부의 세수수입은 GDP의 10%(2017년, IMF)에 불과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하위 수준임. 이에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복잡한 부가가치세율을 15%로 단일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5년 후인 2017년 발효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총선 이후인 2019년 1월로 시행 일정을 연기함.
- 독자적인 자원 확보가 어려운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발전 및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원조와 외국인투자로 조달하고 있으며, 원조금액이 국가재정의 약 20%에 달함.
- 방글라데시 재무부의 'Bangladesh Economic Review 2017'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의 원조 수혜규모는 35.3억 달러로 IDA(14억 달러), ADB(7.5억 달러), 일본(6.5억 달러), 캐나다(1억 달러), 인도(0.8억 달러), 러시아(0.7억 달러), 중국(0.7억 달러) 등이 주요 원조 공여국(기관)임.

구조적취약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 방글라데시는 6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강우량이 집중되며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매우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내려감. 또한 국경의 80%가 저지대로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세계에서 손꼽히게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만큼 자연재해 발생시 식료품, 자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됨.
- 2017년 5월 사이클론 Mora가 방글라데시를 강타하여 해안 지역에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만 호의 가옥이 훼손되었으며, 2017년 우기에 발생한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75백만 달러에서 1,112백만 달러(GDP의 0.35~0.44%) 수준으로 추정됨.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4년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를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평가했으며, Global Climate Risk 2017 보고서 또한 지난 20년 간(1996~2015년) 재난 피해를 입은 상위 10개국** 중 방글라데시를 6위로 선정함.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

** 온두라스, 미얀마, 아이티, 니카라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과테말라, 태국(높은 순)

성장잠재력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의류 생산기지로 성장

- 방글라데시는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H&M 등 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대 유럽 수출물량이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 2위 의류수출국으로 도약함.
- 의류업계 법정 최저임금은 2013년 인상 후 월 64달러(5,300다카)로 유지되고 있음. 이는 중국의 1/4, 인도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들에게 투자매력도가 높음.
- 아울러 2017년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46년 방글라데시 인구는 2억 명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의류업계 노동자들의 요구로 최저임금을 95달러(2013년도 최저임금 대비 51%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저임노동력 보유에 따른 경쟁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2018년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동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부문 월 임금 수준은 중국(470달러), 태국(378달러), 인도(257달러), 베트남(216달러), 캄보디아(170달러), 미얀마(135달러), 방글라데시(101달러)로 파악됨.

정책성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노력

-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6~20년 간 4,100억 달러(2018년 GDP의 1.4배)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 보고서 2017/18에서도 수송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경쟁력은 137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인프라 개발수요가 큰 상황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7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통해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외국인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외국인직접 투자는 지속적인 유입 추세를 보임.
- 정부는 2018.7월 투자청(BIDA)을 통해 외국인 투자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총리실 직속기구인 경제특구주무관청(BEZA)을 통해 2030년까지 100개의 경제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투자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순투자유입액(연간, 억 달러) : 13('12) → 21('13) → 25('14) → 28('15) → 23('16) → 20('17) → 22('18)

- 인도, 중국,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송 및 에너지 부문 등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고 2019년도 계획 연간개발 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예산 규모를 전체 정부지출액의 37%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된 정부의 개발지출

[표 1] 주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국가	분야	사업명	사업규모 (억 달러)	참여기관(기업)
중국	철도	Dhaka-Jessore Railway	31	China Railway Group
	교량	Padma Multipurpose Bridge	36	China Major Bridge Engineering Company
	발전소	Payra Coal-Fired Power Plant	16	China National Machinery Import and Export Group.
	송유관	Chittagong Oil Pipeline	0.7	China Petroleum Pipeline Bureau
인도	발전소	Maitree Super Thermal Power Project	15	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
	철도	Khulna-Mongla Railway	0.5	인도 정부 금융지원
	항구	Payra Deep Sea Port	-	인도 정부와 협의 중
일본	도시철도	Dhaka Mass Rapid Transit	28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항구	Matarbari Deep Sea Port	46	
	발전소	Matarbari Coal-Fired Plant	17	

자료 : Fitch Solutions, Key Projects Database

정치동향

현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하나 총선 기간 동안 사회적 불안 요인 존재

- 2014년 총선 당시 방글라데시 국민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을 주축으로 한 야당연합이 총선에 불참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현 집권 여당과의 갈등이 사회불안으로 확산됨.
- 한편,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L)은 야권의 불참과 유혈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해 300개 선거구 중 232석을 차지해 승리했으나, 당시 투표율은 20%에 불과했음.
- * 방글라데시는 40여 개의 정당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2개 정당이 번갈아 국가를 이끌고 있는 양당체제라고 볼 수 있음.
- 2018년 12월 30일로 예정된 총선에서는 국민당 주도의 야당연합이 참가할 의사를 밝혀, 2009년 이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와미 연맹과의 경쟁이 예상됨.
- 하지만 국민당 총재인 Khaleda Zia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이 여러 민·형사 혐의로 기소 당하고 야당 주최 평화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등 야당의 정치활동이 제한받고 있어, 현 집권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올해 11월 15일에는 야당 민족주의당 지지자들이 다카 시내에서 경찰차를 파손시키는 등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시위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존재함.
- 2018년 12월 8일에는 국민당(BNP) 공천탈락자와 지지자들이 다카 외교단지 내 Zia 전 총리의 사무실 앞에서 돌을 던지는 폭력시위가 발생함. Mushiganj 지역에서도 국민당(BNP) 입후보자인 Shah Moazzem 전 부총리 차량이 신원불명자들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Chandpur 지역에서는 국민당 당원들의 타이어 방화 및 통나무를 이용한 고속도로 봉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폭력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사회동향

빈곤율 감소, 최빈국 졸업요건 충족 등 소득수준 개선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국가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을 하회하는 인구비율(Share of population below the National Poverty Line)*은 과거 2010년 31.5% 대비 2016년 24.3%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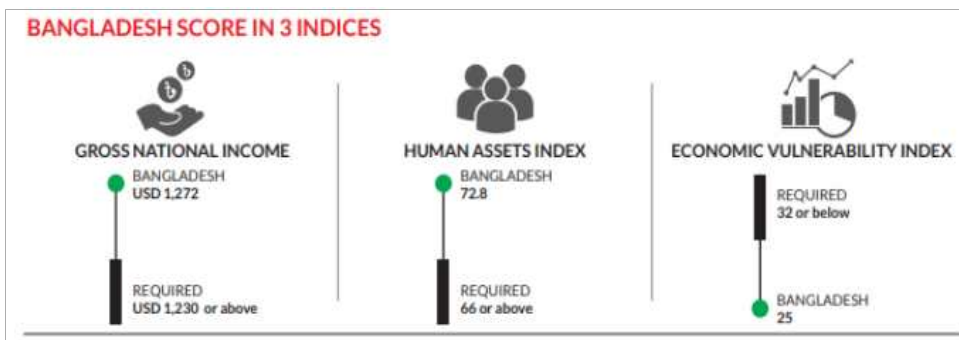
* 주변국의 경우, 인도 21.9%(‘11), 스리랑카 4.1%(‘16), 부탄 8.2%(‘17) 등을 기록함.

- 더불어 세계은행은 2015년 동국의 소득분류를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y)에서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변경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2018년 3월에 들어 처음으로 UN이 지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함.
- 2021년과 2024년에 예정된 두 번의 평가에서도 올해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 3가지 지표를 충족하는 경우, UN경제이사회의 승인으로 최빈국에서 개도국으로 지위가 변경됨.

* 소득기준(1인당 GNI, 2017년) : 저소득국 995달러 이하, 하위 중소득국 996~3,895달러

** 방글라데시의 1인당 GNI(세계은행, 2017년)는 1,470달러를 기록함.

[그림3] 방글라데시의 최빈국 졸업요건 충족 현황 (2018년)



자료 : IDLC 리서치기관, Kotra

사회동향

의류업계 노동자 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소폭 개선

- 주요 수출산업인 의류산업의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2~13년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류공장의 화재 및 붕괴사고로 희생자가 속출하자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근로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함.
- 이후 정부는 2013년 7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망위로금, 퇴직금 지급,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동년 12월 의류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월 3,000다카(38달러)에서 5,300다카(69달러)로 77% 인상함.
- 올해 총선을 앞두고 방글라데시 의류업계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자 정부는 2018. 9월 중 최저임금을 종전대비 51% 높은 8,000다카(9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위협

-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 신자이며, 이 중 대다수가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수인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없고, 사회 전반에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크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미미한 편임.
-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외국인, 경찰 대상 테러로 방글라데시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2018년 들어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대규모 테러 사태는 발생하지 않음.
- 2016년 7월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대사관 밀집지구의 고급 식당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외국인 18명을 포함한 2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함. 2017년 3월에는 경찰 대테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음.
- 한편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은 2018.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테러 활동을 다소 등한시함에 따라 동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잠재된 테러 위협은 여전히 사회불안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음.

* 1995년에 설립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비정부기구

총선을 앞두고 교통안전 관련 대규모 시위 발생

-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교통법규 미준수로 교통 혼잡이 만연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3,0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함.
- 이에 2018년 7월 수도인 다카에서 10대 학생 2명이 과속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중심의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 당국은 8월 초 고무탄, 최루가스를 동원한 강경 진압을 실시함.
- 그러나 시위대의 강경한 대응으로 정부 당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경우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으나, 교통법규 미준수와 교통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관계

인도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인도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최대 지원국이자 동국의 제2위 수입국(총수입액의 15%)으로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도의 경제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4월 하시나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후속조치로 인도 재무장관이 10월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45억 달러의 양허성 크레딧 라인을 승인함.

중국과의 우호 관계 강화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제1위 수입국(총수입액의 31.8%)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016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수송,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36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이래, A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사업과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통한 대 방글라데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8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중국-방글라데시 투자 포럼을 최초로 개최하고 양국의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하였고, 2018년 5월에는 중국과 인도가 방글라데시 다카 증권거래소 지분 25%를 인수경쟁을 벌인 끝에 중국의 선전거래소가 최종적으로 해당 지분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중국과 방글라데시간 경제적 협력 관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얀마와 로힝야 난민 문제 해결 다소 지연

- 미얀마 정부군이 2017년 8월 로힝야족 이슬람 무장세력의 경찰서 습격 사건에 대응해 로힝야족 거주 지역을 공격한 이래 미얀마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자, 2018년 11월 말 기준 92만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대피함.
-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재입국 불허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자 난민 송환과 국경 경계 강화에 합의하였음.
-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올해 11월 송환개시 예정 시점까지도 로힝야족 중에 자발적 송환을 신청한 난민이 없어, 다가오는 총선 이후에 난민 송환에 관한 방침을 재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미얀마는 2018.6월 중 유엔난민기구와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송환'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난민들의 신변 안전과 시민권 보장 등의 환경 조성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 금융지원액 연체율 미미

- 2018년 6월 말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 35.2억 달러(단기 7.8억 달러, 중장기 27.4억 달러) 중 중장기 승인금액 17.5백만 달러를 연체 중으로, 총승인금액 대비 연체비율은 0.5%로 파악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3(2018.12)	C3(2017.12)
OECD	5등급(2018.06)	5등급(2017.06)
Moody's	Ba3 (2018.03)	Ba3 (2017.06)
Fitch	BB-(2018.02)	BB-(2017.02)

OECD 5등급, 국제신평사 기존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8.6월 베트남 등과 의류 부문 수출 경쟁에 노출, 높은 은행 부실채권비율(10%) 등 은행 부문 상황 악화, 2018년 12월말 총선을 앞두고 재정수지 적자 상황 지속, 야당 시위와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치 불안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5등급을 유지함.
- 국제신용평가사는 높은 경제성장률,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따른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기반, 낮은 1인당 소득수준, 정치적 불안 요인, 테러 등 사회불안 요소 등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함.

- 방글라데시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민간소비 증가, 의류부문 수출성장세,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근로자 송금액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7%의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됨. 한편,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외채구조는 중장기 양허성 차관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채상환원리금비율 등 외채 관련 지표가 안정적이고 월평균수입액의 6.4개월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함.
-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12월 말 예정된 총선에서도 재집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총선을 앞두고 야당 지지자들의 정치시위와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 92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 송환 문제 등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함.
-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경제활동인구 등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업경영여건과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 치안 문제 등은 주요한 경제성장 및 대외적 투자신인도 제고를 저해하고 있음.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C3로 유지하고자 하며, 12월 총선에서 중대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동국의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OECD 5등급) (수은 C3)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1)
GDP 규모(억 달러)	2,621	221	901	673
1인당 GDP(달러)	1,606	1,379	4,073	1,278
경제성장률(%)	7.1	6.9	3.3	6.8
소비자물가상승률(%)	5.7	2.9	6.5	4.0
재정수지/GDP(%)	-3.1	-1.9	-5.5	-2.7
경상수지/GDP(%)	-1.2	-8.5	-2.6	-4.3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6.4	5.9	3.0	2.6
외채상환액/총수출(%)	4.6	4.1	12.4	3.4
총외채잔액/GDP(%)	16.5	49.6	59.4	14.5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23.8	32.5	100.5	23.8